

박광태 광주시장

민선 4기 전반기 결산·후반기 구상

박준영 전남지사

# 고부가 LED 산업 육성 주력

# 노인 살기좋은 실버피아 조성

박광태 광주시장은 29일 “아구장 신축 요구가 높은 만큼 3만석 가량의 국제 규모 아구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LED(발광다이오드) 시범도시 지정을 위해 3천억원을 투입, 고부가가치 LED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민선 4기 후반기에는 생산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문화수도를 뒷받침하는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실버피아(Silver-pia)를 조성하는 등 17개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민선 4기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광주가 ‘만년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생산도시·수출도시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5인 이상 제조업체 증가율 전국 1위, 산업생산증가율 광역시 1위라는 각종 통계 지표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공장용지가 다

## 생산·수출 도시 탈바꿈 자부 공장용지 170만평 추가 조성

분양되고도 모자라 170만평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U대회 재도전 여부는, 부산과 대구, 인천 등은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로 세계적으로 거둬나고 있으나 광주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대규모 국제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해 2013년 대회 유치에 실패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회 재도전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최대 공약인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의 진척 상황은, 지난해 광주지역 취업자는 63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고용률도 1%P 상승한 56.5%로 5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갈수록 낮아지고 청년실업도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광주 지하철의 화순·나주 연장과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구상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호선은 화순·나주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와 공동 생활권인 장성·담양·나주·화순의 연계 발전을 위해 제3순환도로 건설 등 광역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중적 차원에서 ‘광주’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U대회 재도전 시민 뜻따라 결정 의료단지 유치 전남과 공동 전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데, 광주는 전국 최초의 노인건강타운 조성 등 의료기기분야 유치를 위해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왔습니다. 전남도가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힘을 합칠 용의가 있습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한반도 선벨트’ 남해안 개발

(SUN)

# 젊은이들 찾는 전남 만들 터



## 지방 발전 경쟁력 갖추도록 불합리 규제 완화 지속 건의

30일로 민선 4기 상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박람회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쓴 결과 취업이 계속돼온 인구감소의 폭을 줄였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영산강 뱃길 복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전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민선 4기 상반기를 자평한다면, 2004년 도지사 취임이후 가장 큰 걱정은 매년 한계 군 인구에

해당하는 3만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젊은 인력의 유출이 심각했는데, 2012 세계박람회 유치, 전일염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요즘 들어 감소폭이 크게 줄어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해안권은 관련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규제로 묶여 있는데,

전국이 고무 잘 살기 위해서는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지방의 SOC를 더 확충하고 미래산업과 공기업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상국립공원상의 주거지나 농경지의 공원구역 해제, 절대보존 지역 밖의 관광시설 허용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

## 영산강 뱃길은 도지사 공약 대운하 관계없이 추진할 것

체’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로, 영산강 뱃길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영산강 뱃길 복원은 2004년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입니다. 2005년부터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문분업을 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출발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치수 대책도 세우고 뱃길을 복원하며, 주변 문화유적과 연계해 관광지로도 가꿔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을 대운하 사업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총선과 대선 시기조정,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위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방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필요하다고.

민선 4기 하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세계박람회, U대회 등 전반기에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관광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젊은이들이 찾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축으로 만드는 ‘한반도 선벨트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자 jnews@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OUR.com

2008 한국서비스대상 6년 연속 대상수상

무안출발 2008 여름방학 특가 특선

정통상해, 항주, 소주 4일 w499,000~549,000(비행료 포함)

정통북경, 만리장성 4/5일 w439,000~489,000(비행료 포함)

정통상해, 장가계원가게, 항주 5일 w899,000~949,000(비행료 포함)

정통북경, 장가계원가게, 천문산 7/5일 w1,149,000~1,299,000(비행료 포함)

정통장사, 장가계원가게 4/5일 w549,000~579,000(비행료 포함)

정통홍콩, 마카오, 심천 or 따윈 4/5일 w799,000~899,000(비행료 포함)

정통상해, 백두산, 고구려유적지 4/5일 w749,000~849,000(비행료 포함)

정통홍콩, 광광+자위 4/5일 w749,000~849,000(비행료 포함)

중국 무안출발

- 정통상해(위티월드), 항주, 서딩 4일 w569,000~799,000(비행료 포함)
- 정통상해, 상해(신안스파) 4/5일 w859,000~919,000(비행료 포함)
- 정통(신안스파) 상해, 항주+1DAY자유 4일 w679,000~749,000(비행료 포함)
- 정통(신안스파) 상해, 항주, 서딩 5일 w699,000~799,000(비행료 포함)

일본 무안출발

- 정통(관속선) 대마도 역사탐방 3일 w439,000~44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북큐슈+벵부 스키+노이 3일 w669,000~6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북큐슈+하우스텐보스 4일 w899,000~91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북큐슈+하오나랜드 4일 w899,000~919,000(비행료 포함)

북해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 정통(관속선) 북해도 완주여행 4일 w1,390,000~1,790,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북해도 완전일주 5일 w1,450,000~1,790,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북해도 G.O.I. 관광+호텔 4일 w1,450,000~1,990,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북해도 동굴+호텔+호텔 4일 w1,290,000~2,000,000(비행료 포함)

동남아 특별전세기 인천출발

- 정통(관속선) 동남아 5/6일 w699,000~1,1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동남아 5/6일 w699,000~1,1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동남아 5/6일 w699,000~1,1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동남아 5/6일 w699,000~1,199,000(비행료 포함)

호주/캐나다 인천출발

- 정통(관속선) 호주/캐나다 5/6일 w1,899,000~2,0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호주/캐나다 5/6일 w1,899,000~2,0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호주/캐나다 5/6일 w1,899,000~2,099,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호주/캐나다 5/6일 w1,899,000~2,099,000(비행료 포함)

유럽 인천출발

- 정통(관속선) 유럽 4/5일 w3,990,000~5,390,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유럽 6/7일 w4,790,000~5,390,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유럽 6/7일 w4,790,000~5,390,000(비행료 포함)
- 정통(관속선) 유럽 6/7일 w4,790,000~5,390,000(비행료 포함)